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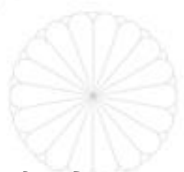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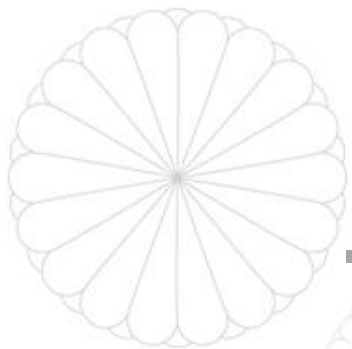
충청남도 갈등관리 관계관 합동 워크숍

제주지역 공공갈등 사례와 해결방안

- 지역개발정책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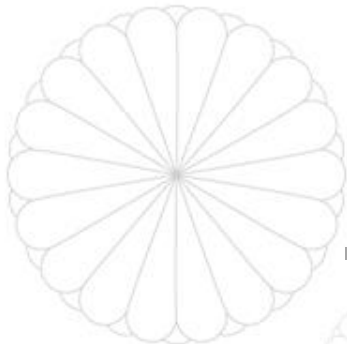
2018. 3. 28

이영웅 사무처장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제주지역의 주요 공공갈등
3. 제주도 개발정책에 따른 갈등 사례
 - 3-1. 사진으로 본 제주의 경관 변화
 - 3-2. 제주개발정책의 변천 양상
 - 3-3. 제주도 개발정책 평가
 - 3-4.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위한 제언



1. 들어가는 말

- ◆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 ❖ 지방정부는 지역의 최대 고용주면서 최대 소비주체
 - 제주도 전체 공무원 5,300명, 년 예산 4조원으로 제주지역 최대
- ❖ 지방정부는 지역 정치경제의 중심
 - 각종 세금 징수 및 인·허가 권한, 산하기관 예산 및 인사 권한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정부 권한 대거 이양
 - 토지, 건물, 주식 등 행정·보존·잡종재산 보유
- ❖ 자치단체의 정책, 예산운용 방향에 따라 지역의 사회·경제 큰 영향
- ❖ 공공갈등의 당사자이면서 관리의 주체

2. 제주지역의 주요 공공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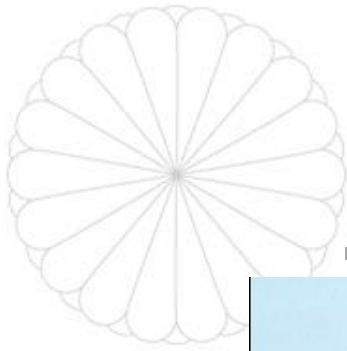
- 1)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 2) 대중교통체계 개편
- 3)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 4) 영리병원 도입
- 5) 제주해군기지 건설
- 6) 지역개발정책



3. 제주도 개발정책에 따른 갈등 사례

- ❖ 제주도는 국내 최대 관광도시
- ❖ 천혜의 자연환경과 뛰어난 경관자원 보유
-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자본유치에 의한 대규모 개발방식 지향
- ❖ 관광개발 과정에서 환경 및 경관 파괴, 지역공동체 훼손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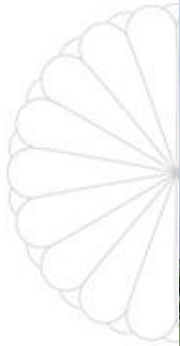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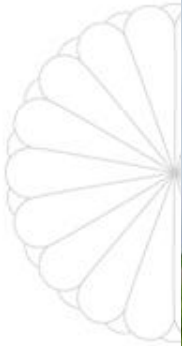
3-1. 사진으로 본 제주의 경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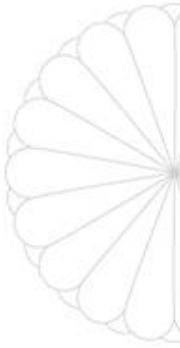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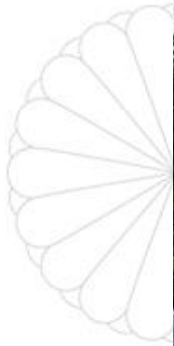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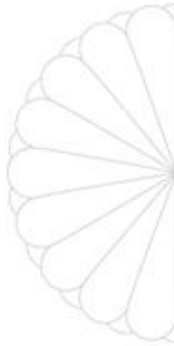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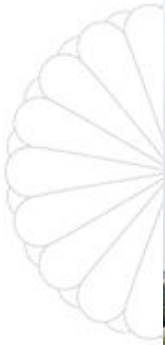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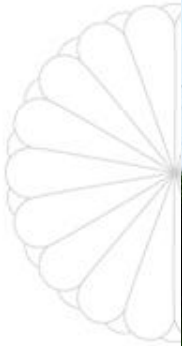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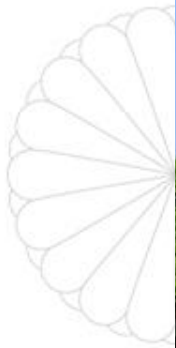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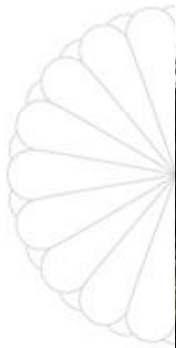














3-2. 제주개발정책의 변천 양상

❖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제주개발계획 시행

- ✓ 1950년대 말부터 중앙정부 주도하의 지역개발계획 수립

❖ 외지자본의 투기 성행

- ✓ 구체적인 관광개발 지구지정이 되면서 외지인 토지소유 증가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추진에 따른 범도민적 반대운동

- ✓ 법안은 규제완화 및 개발촉진 내용
- ✓ 외지자본에 의한 난개발 우려
- ✓ 도민주체 개발 배제되어 개발이익 도외 유출 심각
- ✓ 1차 산업 보호방안 부재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 제주개발문제 확대



「관광지도」바깥 8개년계획 청사진

국토를 연결,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지도, 바깥 8개년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관광지도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지도, 바깥 8개년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관광지도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지도, 바깥 8개년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관광지도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지도, 바깥 8개년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관광지도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지도, 바깥 8개년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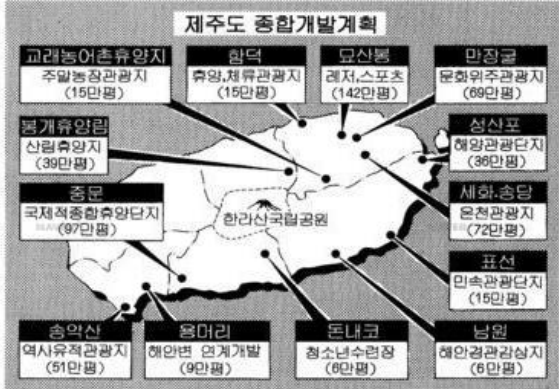


관광지도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지도, 바깥 8개년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관광지도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지도, 바깥 8개년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7兆4千億 투입 94후반기에 착공 성산포 중문리 묘산봉 조성개발

민자유치에 성과달려... 주민소외감처리도 숙제

제주도 관광개발계획에 따르면, 성산포 중문리 묘산봉 조성개발 사업은 7兆4千億 원이 투입되며, 94후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에 성과를 달성했지만, 주민소외감 처리도 숙제다.



제주도 관광개발계획에 따르면, 성산포 중문리 묘산봉 조성개발 사업은 7兆4千億 원이 투입되며, 94후반기에 착공 예정이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에 성과를 달성했지만, 주민소외감 처리도 숙제다.

관광지도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지도, 바깥 8개년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관광지도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지도, 바깥 8개년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관광지도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지도, 바깥 8개년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관광지도는 관광자원과 관광시설을 연결하는 관광지도, 바깥 8개년계획 청사진이 나왔다.

21세기로 달려가는 제주도 '관광낙원' 야망의 삽질

2000년대 한국의 하와이를 꿈꾼다. 제주도가 아심차게 추진중인 2차항공협약이 본격 화되었다. 지난해 말 준공된 제주국제공항, 함덕관광지, 봉개유아원관광지, 남원2차관광지 등이 공사에 들어간데 이어 읍골에 콘도 분양이 시작되는 등 제주도가 사상 최대 규모의 본격적인 관광지 개발로 돌풍이 시작됐다. 관광지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읍골말까지 모든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라 사업진행 준비에 바쁘게 하고 있다. 제주에서 콘도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태 콘도회원권 시장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제주중앙부동산계회는 2001년 말 목표 3개 관광단지, 20개 관광공장과 총 929억55백80억원을 들여 제주도를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제적인 관광중심지로 만든다는 청사진. 현재 17개 업체가 527억9천510억원의 민자를 투입,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아직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곳은 6개 지구의 개발주체가 정해져 경우 6조원 이상의 민자유치가 예상된다.

사상최대 종합개발계획
2001년까지 완성 '부푼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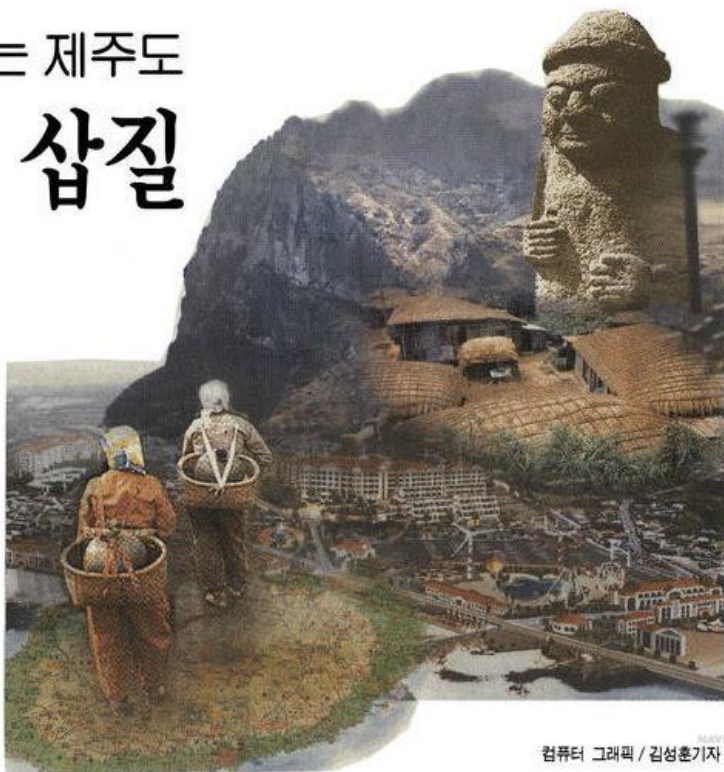
◇어떻게 개발되나=중문2차, 성산, 표선 등 3개 관광단지와 봉개, 함덕, 남원 등 20개 관광지구를 민간자율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

민간기업 단독개발을 비롯해 토지공사, 관광공사, 민관합동개발 방식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

사업지구별로 고유의 특성을 살려 호텔·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상가, 해양레저시설, 휴양시설, 수련장, 노인휴양촌, 골프장 등이 갖춰진다. 휴양 및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공공기관1관 공공공사의 토지공사는 각각 1개3천6백억원과 4천8백억원을 줄여 총문2만2천의 성상조여양공판단지를 개발한다. 지난해 공공에 들어간 총문2천2천구에는 5,000억원을 수용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와 LG플레이리스트호텔 등 공공시설 4동 및 종합유류사업시설을 들어선다. 1.16만평 규모로 성상조여양공판단지는 토공에서 올렸던 첫공판다는 계획이며 사업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부산전신공판단지는 매일통상에서 7백억원을 투입, 1만6천평을 개발키로 하고 사업신청을 준비중이다.

지난해말 착공한 한국도로개발의 봉거후암리공지는 40만평 규모로 심바산업시설이 대거 세워진다. 그 시·영향 권도와 농지취득 및 토지수용, 토전권 등등을 갖춘 고저센터와 33m의 상징탑, 테마파크, 대중골프장 등이 들어선다. 신성리조트와 함께 봉거리 민관합동으로 추진되는 합계공격지는 14만평 규모로 콘도·여과·상가·레크리에이션·호텔·엔터테인먼트 시설이 들어선다.



컴퓨터 그래픽 / 김성훈기자

개발 어떻게

3개관광단지·20개 지구
民資등 10조억원 투입
휴양·체류형 집중개발

약제저시점 등이 선보이다.

금호개발의 남원2차관광지는 1차 지구, 영화박물관 등과 연계한 해안관광휴양지로 조성된다. 1천5백72억원을 들여 용머리관광지 개발에 나선 이랜드그룹은 황해개발 모

관광·숙박시설

70개동 8,672실 신축
콘도 4,000여실 쏟아져
기존호텔도 증축 활발

파크사이드호텔 등이 공사를 진행 중이며 성산포, 제주남원관광호텔 탐라힐, 한림관광호텔 등은 미착공인 상태다.

기존호텔들도 증축(531실)에 나
서고 있다. 타키파파 나시오 데이

문제점은 원가

투자회수 서두르는 기업들
관광지개발 열의적이고
콘도·골프장건설에 입맛

우래저개발 등이 공사에 들어갔거나 준비중인 상태다. 콘도회원권시점에 제주콘도 분양열풍이 눈앞에 닥친 것이다.

◇기업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
니-피로도, 종합계산을 제외하면

新濟州땅 절반 外地人소유

모두 4百47萬㎡...대부분綠地·林野

값싼땅...坪當3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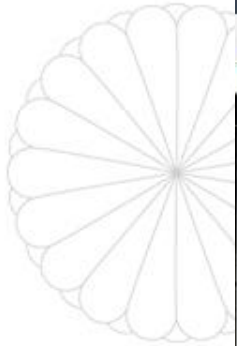
【濟州=姜實映기자】꽤전한
전원도시를 조성한다는 명목
으로 개발된 제주시 연동지
역(일명·신제주) 일대 토
지 9백36만5천㎡중 47·7
%인 4백46만8천㎡가 도외
거주자들이 소유하고있고 연
동거주자는 14%·도내 거주
자 소유면적은 38·3%인 3

백59만㎡인 것으로 나타났
다. 8월 제주시에 따르면 연
동지역 토지소유현황 조사결
과 대안단지 9백36만5천㎡
중 도외거주자 5백61명이
소유한 토지는 4백46만8천
㎡로 전체면적의 47·7%이
고 도내거주자 1천61명이

소유한 토지는 38·3%인 3
백59만㎡· 나머지 14%인 1
백30만7천㎡가 연동거주자
7백96명의 소유로 나타났
다. 도외거주자의 신제주지역
토지소유실태를 보면 농지대
동 일대가 3백56만5천㎡
(1백6만소유)로 가장 많고,

과수원(밀감밭) 30만3천㎡
(23명소유)·밭2만7천㎡(1
백34명)·대지15만9천㎡(2
백95명) 기타 21만3천㎡(3
명)로 밝혀졌다.

이번조사에서 특이한 사실
은 도내거주자가 1인당 평
균 3천3백80㎡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도외거주자는 1
인당 평당 7천9백60㎡를 소
유, 도외거주자가 도내거주
자에 비해 갑절이 넘게 토지
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18명이 제주땅 4.4% 소유

50만평 이상씩 차지...제주도민 5명 불과

제주도 땅을 50만평 이상 소유하고있는 개인과 법인은 모두 18명으로 이들이 제주도 전체면적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 제주도민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가 30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50만평 이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은 11명이고 법인은 7개로 이들은 제주도 전체면적 5억5천2백만평의 4.4%인 3천4백37필지 2천3백93만2천평을 소유하고 있다.

이 토지 가운데 제주도민이나 마을 공동목장 그리고 제주도 소재 기업 명의로 돼 있는 땅은 5건으로(회사별 7위인 오라관광 땅은 대림산업 소유로 동기), 18개 개인과 법인소유 토지 가운데 19%인 4백64만9천평에 불과하고 나머지 81%인 1천9백28만3천평은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

한편 이들 토지 가운데 27%를

차지하는 6백49만2천평은 80년 이후에 현 소유자가 구입한 것으로 밝혀져, 제주도 땅에 대한 외지인의 투기가 80년 이후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제주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은 한양대 이사장 김연준씨의 부인 백경순(서울 중구신당동 340-29)씨로 제주시와 북군에 1백37필지 1백47만6천평 규모의 한양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법인의 경우 한진그룹 산하 제동흥산(주)이 1위로 북제주군 애월면 고대리 일대의 4백62만7천평을 소유하고 제동목장을 경영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또 그룹 부회장이며 대한항공 사장인 조중건씨가 개인 5위로 북제주군에 71만6천평을 갖고 있어 제주도에 모두 5백34만3천평을 갖고 있다.

소유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토지 50만평 이상 소유자 현황

◇ 개인별

순 위	성 명	주 소	면적(천평)	소 재 지
1	백경순	서울 중구 신당동 349-29	1,476	제주시북군
2	홍국태	서울 종로구 청운동 8-2	1,057	북제주군
3	정창민	남군 표선면 마을 공동목장	912	남제주군
4	윤대섭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1-156	906	제주북·남군
5	조중건	서울 종로구 삼청동 157-73	716	북제주군
6	문희중	서귀포시 동흥동 1309-4	702	남제주군
7	이상옥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578	남제주군
8	백공옥	일본(재일교포)	549	제주시
9	윤재천	서울 강남구 반포동 257-3	545	제주북·남군
10	정재호	서울 중구 필동3가 28-27	537	북제주군
11	김순협	북군 한경면 마을 공동목장	535	북제주군

◇ 회사별

순 위	회 사 명	주 소	면적(천평)	소 재 지
1	(주)제동흥산	서울 남대문로2가 118	4,627	북·남군
2	(주)성읍목장	· 남대문로4가 17-42	2,983	남제주군
3	(주)제주축산개발	· 필동1가 43-1	2,320	북제주군
4	(주)남영산업	· 명동2가 52-7	2,281	남제주군
5	(주)반도축산개발	제주시 연동 103	1,709	북제주군
6	(주)대유산업	· 이도1동 1642-3	791	서귀포남제주
7	오라관광(주)	· 오라동 310	708	제주시

濟州개발 발발 확산

주민들 “生存權 흔들린다”

“觀光시설만 늘어 農漁業망쳐”

【濟州=李承久기자】 濟州의 民衆의 生存權이 濟州의 開發政策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濟州의 民衆은 濟州의 開發政策이 濟州의 生存權을 위협하고 있다. 濟州의 民衆은 濟州의 開發政策이 濟州의 生存權을 위협하고 있다.

【濟州=李承久기자】 濟州의 民衆의 生存權이 濟州의 開發政策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濟州의 民衆은 濟州의 開發政策이 濟州의 生存權을 위협하고 있다. 濟州의 民衆은 濟州의 開發政策이 濟州의 生存權을 위협하고 있다.

【濟州=李承久기자】 濟州의 民衆의 生存權이 濟州의 開發政策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濟州의 民衆은 濟州의 開發政策이 濟州의 生存權을 위협하고 있다. 濟州의 民衆은 濟州의 開發政策이 濟州의 生存權을 위협하고 있다.

【濟州=李承久기자】 濟州의 民衆의 生存權이 濟州의 開發政策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 濟州의 民衆은 濟州의 開發政策이 濟州의 生存權을 위협하고 있다. 濟州의 民衆은 濟州의 開發政策이 濟州의 生存權을 위협하고 있다.

用途 변경 확대 조항 “惡法” 규정
자연 파괴 개발 이익 財閥獨食

이 때문에 시공사와 개발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개발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개발자의 이익을 위한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

법정 濟州道를 開發하는 濟州道의 民衆은 濟州道의 開發政策이 濟州道의 生存權을 위협하고 있다. 濟州道의 民衆은 濟州道의 開發政策이 濟州道의 生存權을 위협하고 있다.



發行 金五 申五 申五 申五
編輯 金五 申五 申五 申五
印刷 金五 申五 申五 申五
電話 721-7114
電報 721-7241
電傳 721-7755
傳真 721-7575
出版 781-0114
月刊 5,000원
1部 200원

本報는 新聞時價를 照準 刊行합니다.
© 東亞日報社 1991

축 제28회 저축의 날
대한생명
우수저축기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연자 400만 원까지 여러모로
안사드립니다.
대한생명
문의: 789-8686, 8688

오늘의 紙面
濟州道
APEC 회
신도시 文化
水原 유

제주개발 특별법 반대 분신 사망

서귀포 재야단체 청년 정부 강행 방침 비난 유서

【제주=허호준 기자】 7일 오후 7시40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276-1 서귀포 나라사랑청년회(나사청) 사무실 4층 옥상에서 나사청 전 간부인 양용찬(26·남제주군 남원읍 신예리 676)씨가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정을 저지하고 민자당을 타도하자”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온몸에 시너를 끼얹고 분신한 뒤 12m 아래로 투신,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8시께 숨졌다.

분신현장을 처음 본 인근 한라 종합장식 대표 김춘호(35)씨는 “근처 나사청 옥상에서 불길기 치솟아 달려가보니 양씨가 불길에 휩싸여 있어 119 구급차로 시내 서귀포의료원으로 급히 옮겨 응급치료를 받게 했으나 숨졌다”고 말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양씨가 온몸에 3도 중화상을 입고 호흡곤란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양씨는 분신 직전 옥상바닥에 남긴 대학노트 1장 분량의 유서에서 “우리의 삶과 뼈를 갈아먹으며 노리게로 만드는 세계적 관

광지, 제2의 하와이보다는 우리 삶의 터전이자 생활의 보금자리로서의 제주도를 원하기에 특별법 저지, 2차 종합개발계획 폐기와 이를 추진하려는 민자당 타도를 외치며 이길을 간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평소와 다름없이 나사청 사무실에 들러 이용호(27)씨 등 이 단체 회원 3명과 함께 담소를 나누다가 사무실을 나간 후 10분 뒤에 분신했다.

양씨는 제주대 사학과 85학번으로 1년을 수료한 뒤 중퇴하고 타일공 등을 하며 나사청 ‘지역사랑’ 분과에서 일해왔는데, 평소 주변사람들에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주검이 안치된 서귀포의료원 영안실 주변에서는 분신 사망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범도민회 관계자와 대학생 등 1백여명이 밤을 지새웠다.

한편 제주도민들은 정부·여당

이 관광진흥 등을 명목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려 하자, “이 법은 제주땅의 상당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의 마구잡이 제주개발을 돕기 위한 특혜입법이며 자연환경 파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주도개발 특별법제정반대 범도민회’(공동대표 고창훈 교수 등 15인)를 결성하고 각 지역별로 대책위를 구성해 꾸준히 반대운동을 펴왔다.

범도민회 관계자들은 정부·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 및 전교조 제주지부 사무실 등지에서 이날로 6일째 철야

농성을 계속해왔다.

「濟州개발법」 환경파괴 毒素

영향평가 道에 위임

환경처 관련조항 환경보전법과 상치

환경처는 지난달 26일 국회 건설위에서 별첨 통과된 「제주개발 특별법안」이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처 대신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 도개발도 예상되는 환경파괴를 막을 효과적인 장치가 미흡하다며 이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처는 4일이 법안 제14조가 도지개발, 산업입지 및 관공지 조성, 항만·도로 건설, 골프장, 건설 등의 개발사업을 할 경우 환경처가 환경영향평가를 맡도록 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환경영향평가서작성)의

규정도 불리고 도지사가 사업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제의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처는 최근 이 법안

을 제출한 民主黨과 국회 건설위측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를 개발사업 추진 주체인 도지사가 아무런 제재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법안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묵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처는 또 이 법안의 자연환경관련 조항들이 앞으로 시행될 자연환경보전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

HOME > 산업 > 정책·제도

제주도 땅 점령하는 '왕서방'...소유 토지만 296만평

윤관석 "국제도시 아닌 중국자본 도시 될까 우려"

김정일 기자 승인 2016.10.06 15:04 댓글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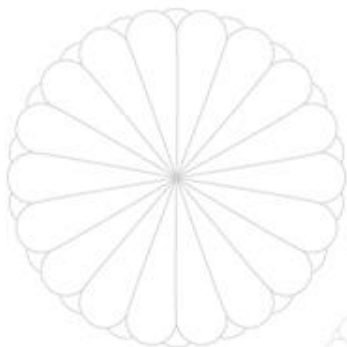
[이뉴스투데이 김정일 기자]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 토지가 점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보유 토지가 최근 6년 새 7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 받은 '제주도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및 투자유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외국인 보유 토지는 686만평에 달했다.

3-3. 제주도 개발정책 평가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 ('17년 6월말 현재)>

년도	사업명	개소
'78~ '05	봉개휴양림관광지 / 함덕관광지 / 아덴힐리조트 / 라온프라이빗타운 중문관광단지 / 표선민속관광지 / 남원관광지 / 토산관광지 미천굴관광지 / 수망관광지 / 제주롯데리조트 / 산천단(2차) 우리들메디컬 / 예래휴양형주거단지 / 제주여성테마파크(제주남이섬)	16
'06	묘산봉관광지(세인트포) / 에코랜드 / 성산포(보광) 테디벨리골프&리조트 / 신화역사공원관광단지	5
'07	라온더마파크 / 제주동물테마파크	2
'08	폴로승마리조트 / 삼매봉 /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 이호	4
'09	세프라인체험랜드 / 한라힐링파크 / 성산포(해양과학관) / 헬스케어타운	4
'10	제주그린벨리관광타운	1
'12	백통신원제주리조트 / 풍산드림랜드	2
'13	핑크스비오토피아 / 무수천 /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3
'16	열해당리조트	1
'17	애월스마트테마파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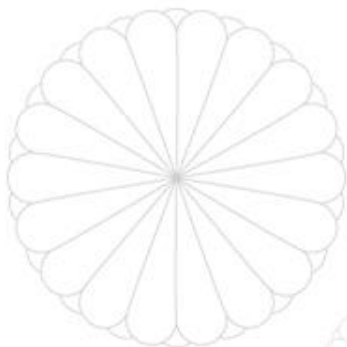
3-3. 제주도 개발정책 평가

❖ 개발중심의 행정체계, 후퇴한 보전정책

- ✓ 국제자유도시 비전 하의 개발계획 수립
- ✓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위한 행정체계 개편
- ✓ 무분별한 공유지 매각
- ✓ 환경적으로 부적합한 사업 입지 개발허가

❖ 단체장 권한 강화에 따른 개발사업 강행

- ✓ 투자유치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 ✓ 도민 여론에 밀려 포기한 개발사업의 재추진(케이블카, 연안매립)
- ✓ 난개발 사업에 대한 갈등 심화



3-3. 제주도 개발정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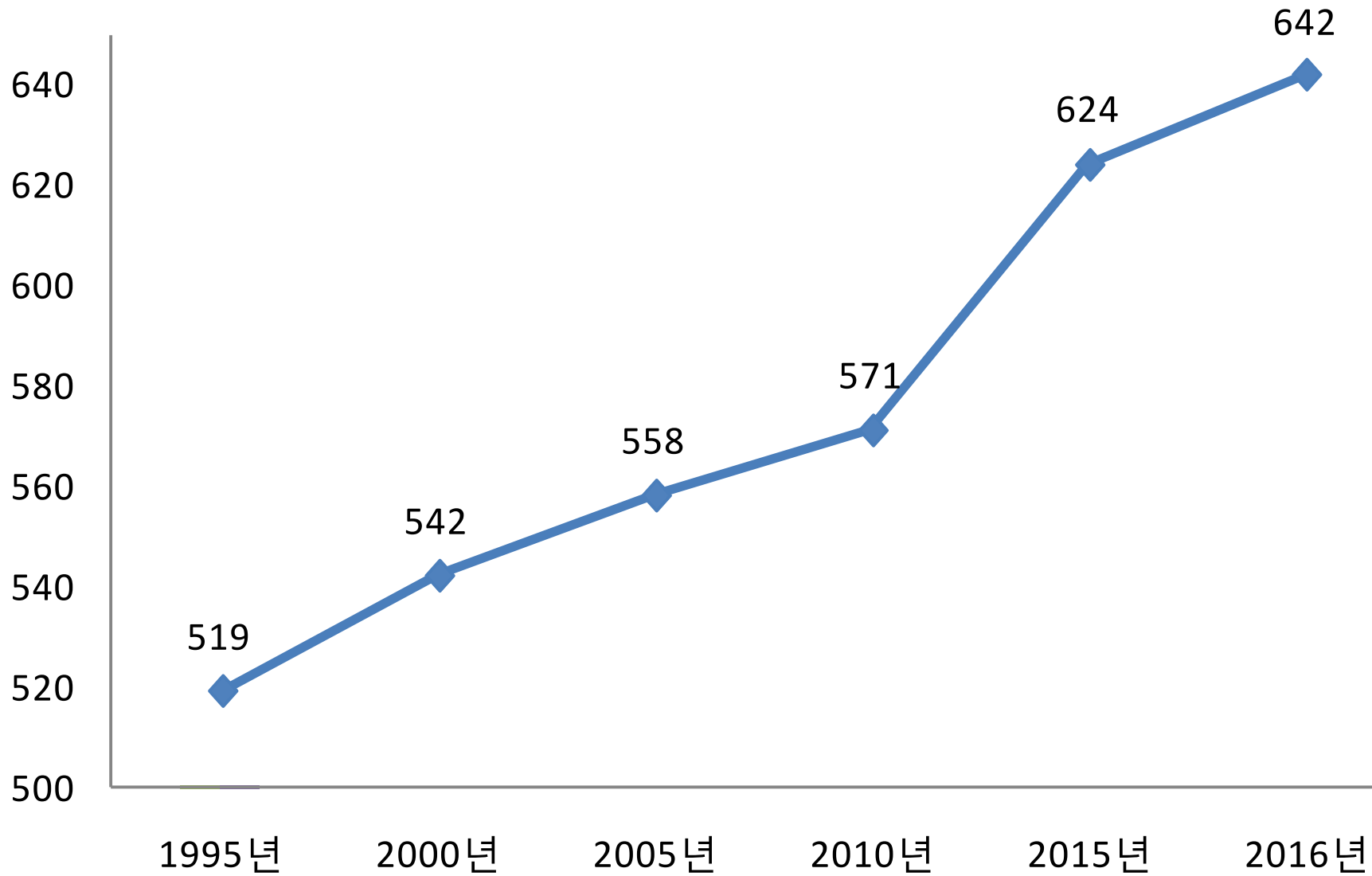
❖ 난개발의 중심에 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곳자왈 파괴, 사업취지 훼손
- ✓ 도시계획의 실패사례, 첨단과학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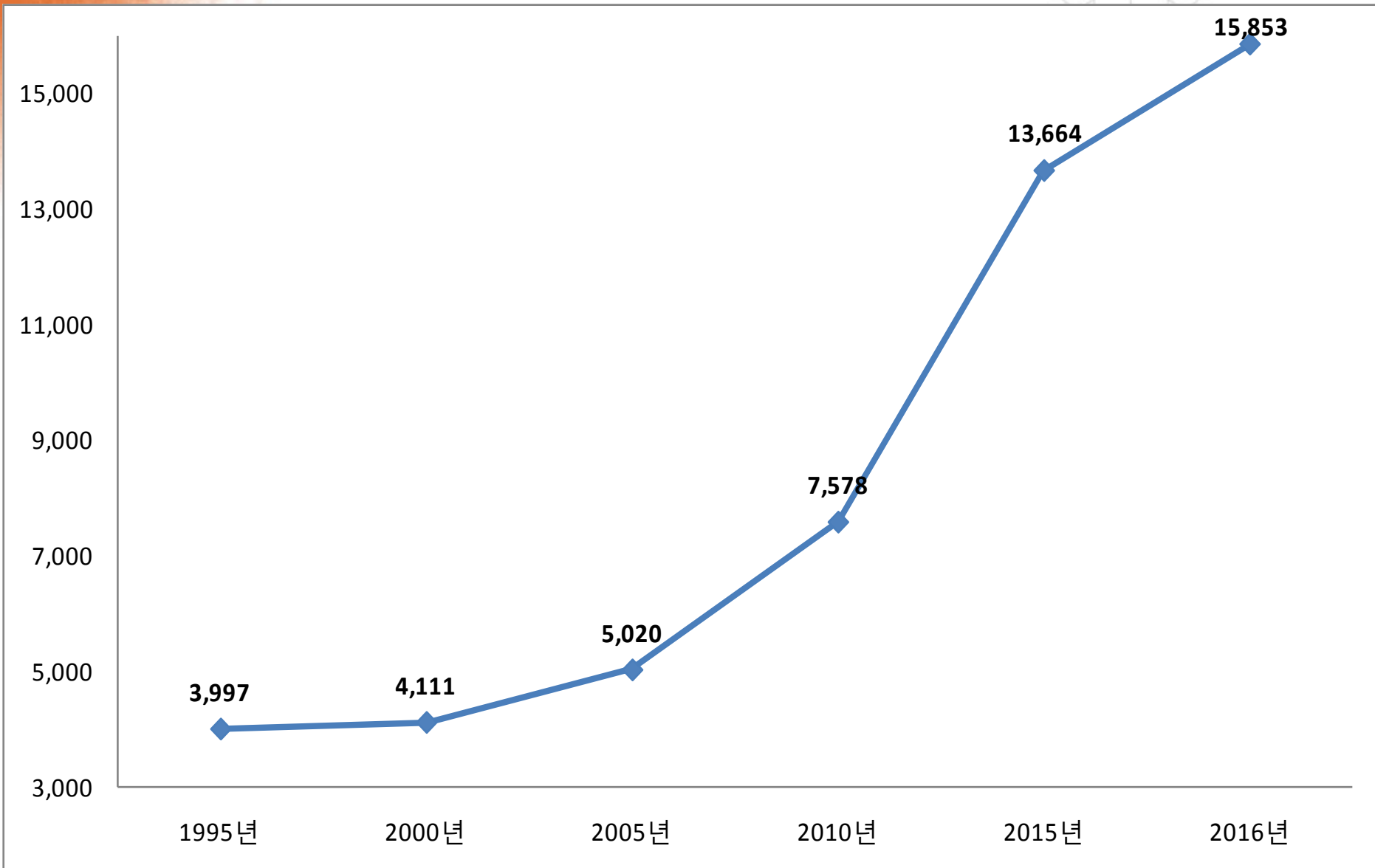
❖ 난개발 확산으로 인한 환경자원의 공공성 강화 공론화

- ✓ 잦은 난개발 논란으로 환경자원의 공공성 강화 여론 형성
- ✓ 지하수, 경관, 풍력 자원 등의 공공재 인식 공론화

< 제주도 연도별 주민등록인구 추이(단위 :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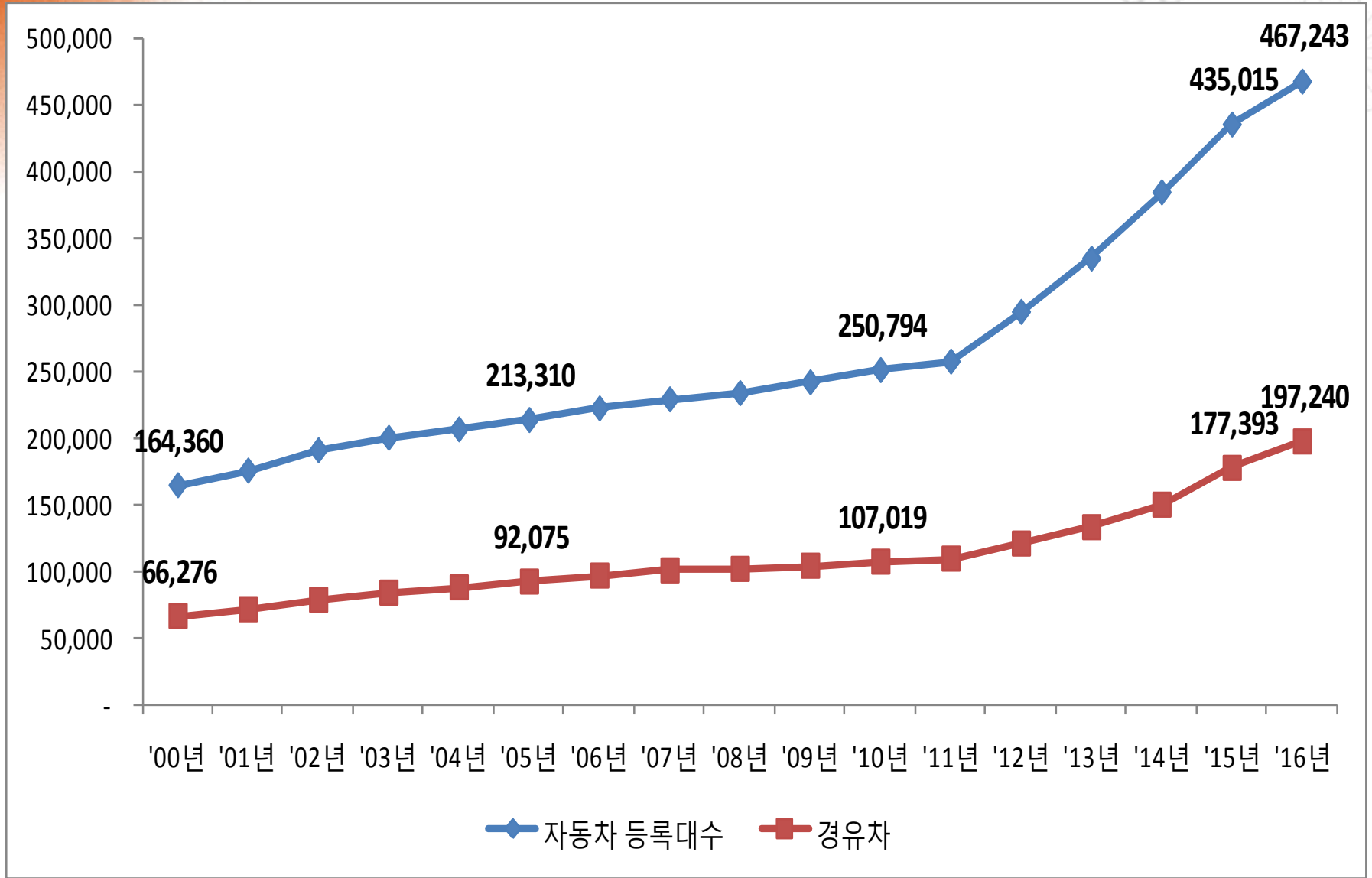
< 제주도 연도별 관광객 추이(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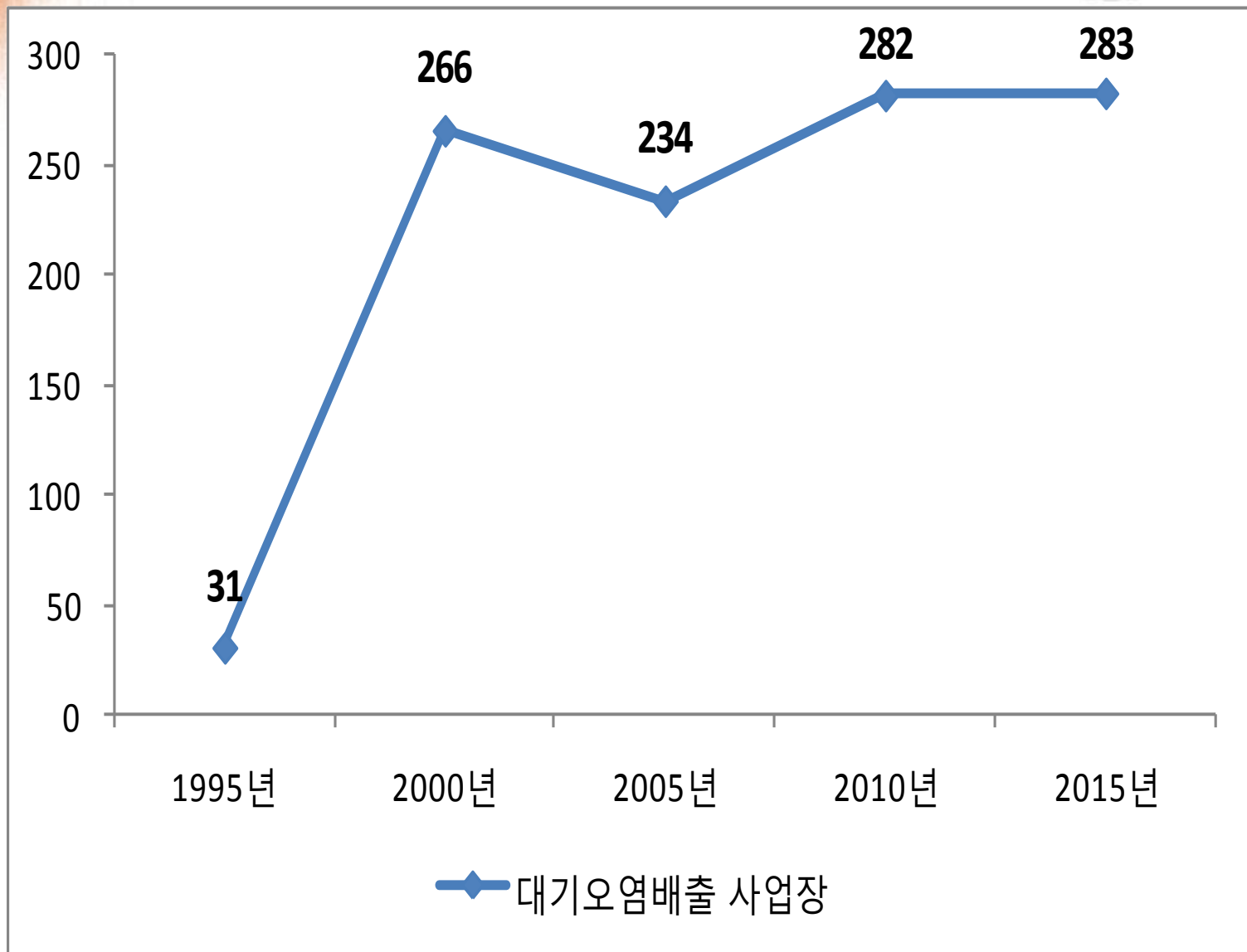
저비용항공사별 제주 노선 취항 경과

티웨이항공 (전, 한성항공)	2005년 8월 : 청주~제주 노선 취항
제주항공	2006년 6월 5일 : 서울(김포)) - 제주 취항 2006년 8월 25일 : 제주) - 부산 취항 2008년 6월 13일 : 청주) - 제주 취항
진에어	2008년 7월 17일 : 서울(김포) - 제주 취항 2009년 4월 3일 : 부산 - 제주 취항
에어부산	2008년 12월 1일 : 부산) - 제주 노선 취항
이스타항공	2009년 1월 7일 : 김포 - 제주 노선 취항 2009년 2월 14일 : 군산 - 제주 노선 취항 2009년 6월 12일 : 청주 - 제주 노선 취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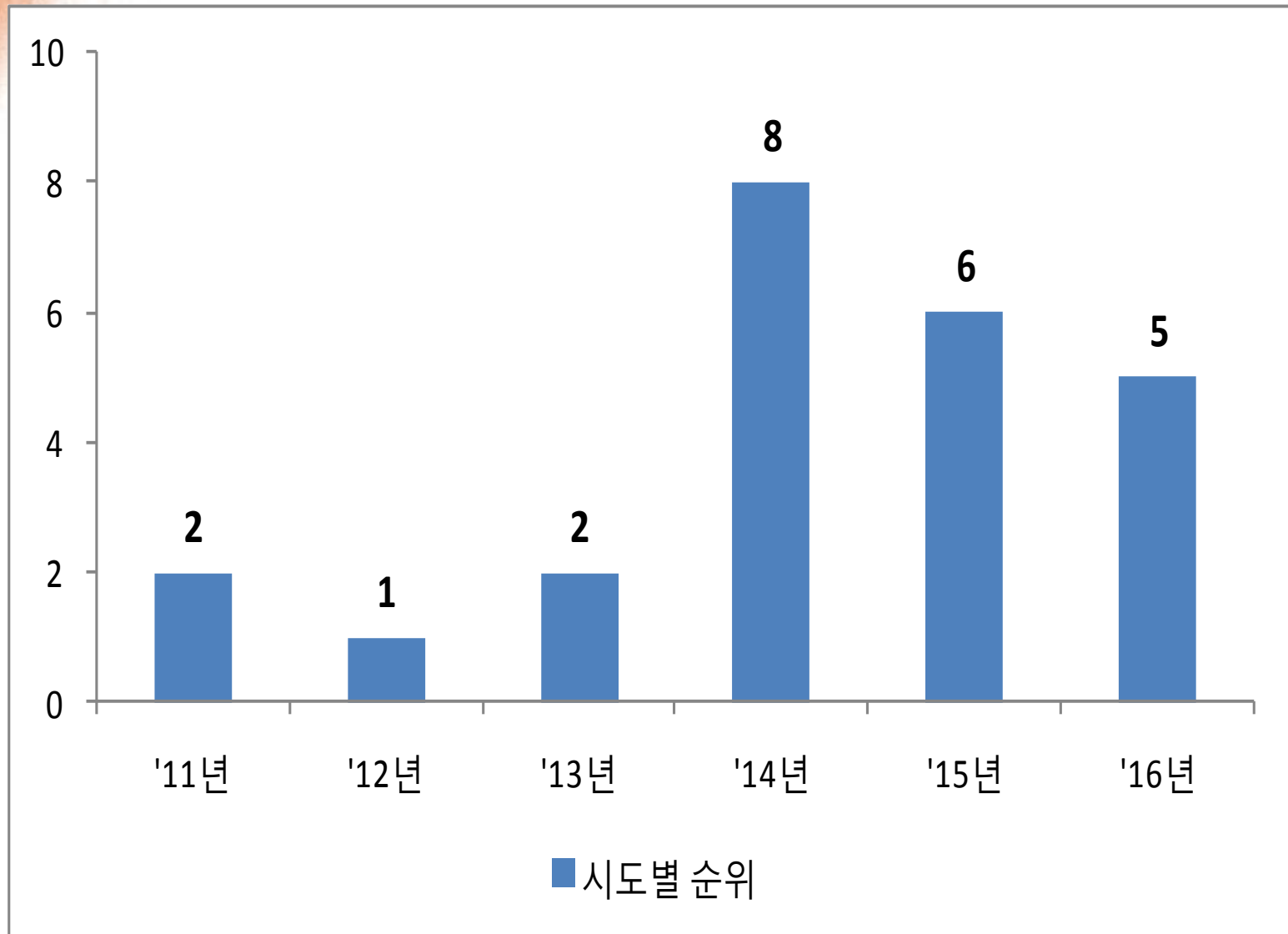
< 제주도 연도별 자동차 등록 및 경유차 현황(단위 :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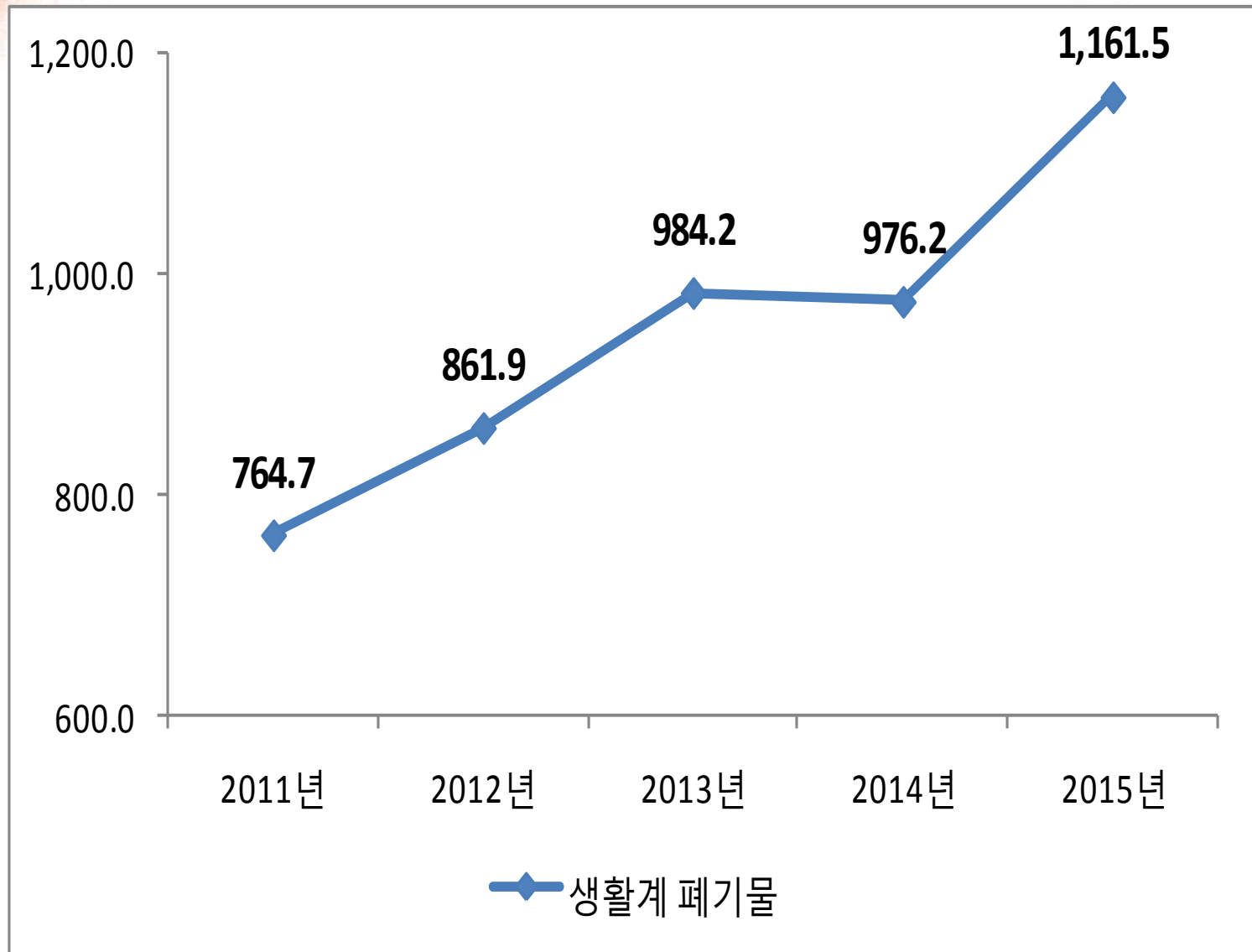
< 제주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추이(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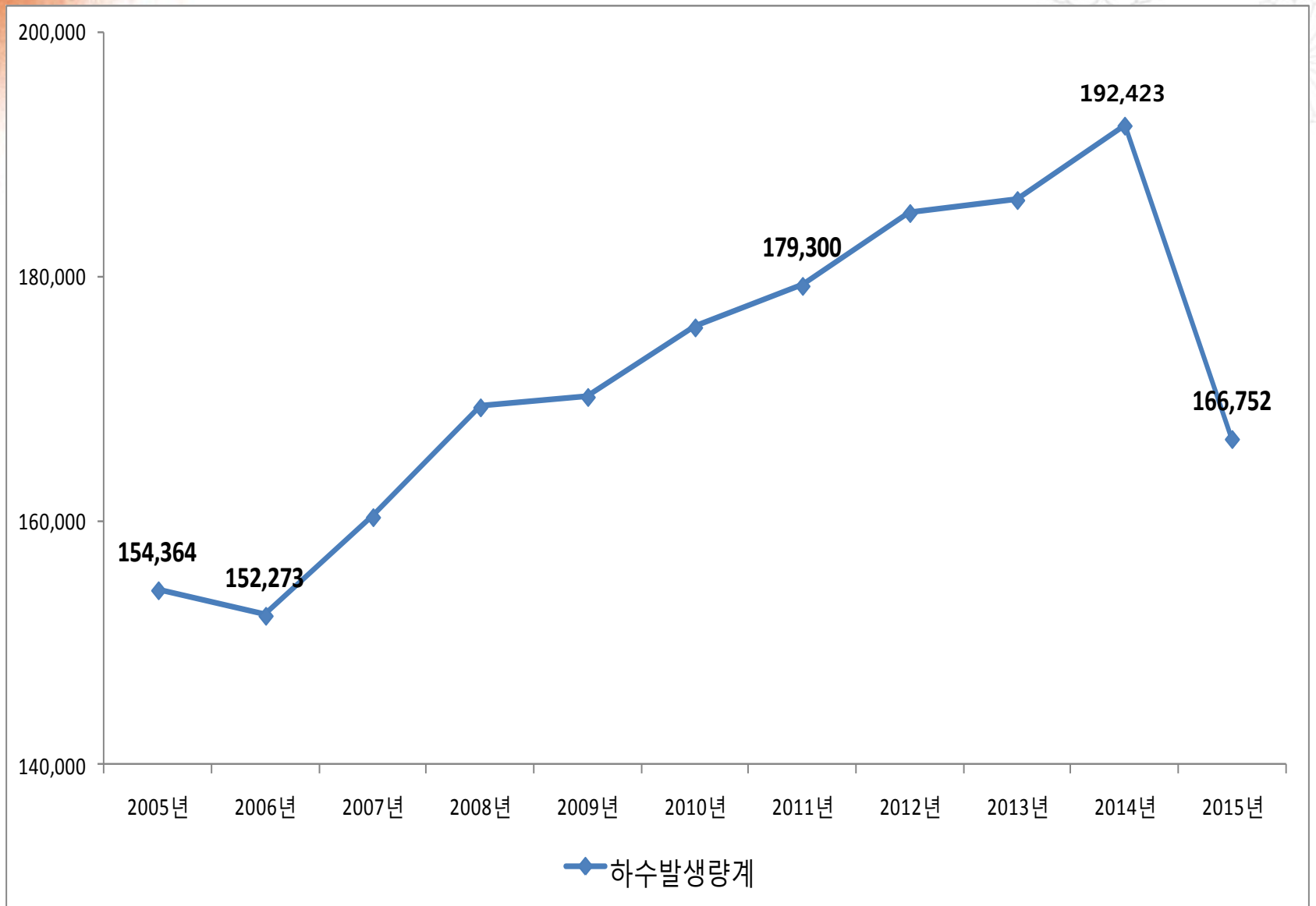
< 시도별 미세먼지 대기오염 청정도 제주도 순위(2016. 10. 기준)>



<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단위: 톤/일) >



< 하수 발생량 현황(단위: m³/일)>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단위: 천 원, %)

구분	제주도			전국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2005년	15,230	14,844	10,749	19,112	18,963	11,209
2013년	23,172	23,801	15,442	28,480	28,683	15,865
2014년	23,911	24,901	15,671	29,441	29,670	16,564
'05년 대비 증감률	57.0	67.8	45.8	54.0	56.5	47.8

* 출처 : 통계청 「(2010년 지역소득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 제주도 정규직 노동자 **평균임금** 전국 **최하위**, 비정규직 **비율** 전국 **최상위**

'지상 낙원' 하와이, 노숙자 급증 몸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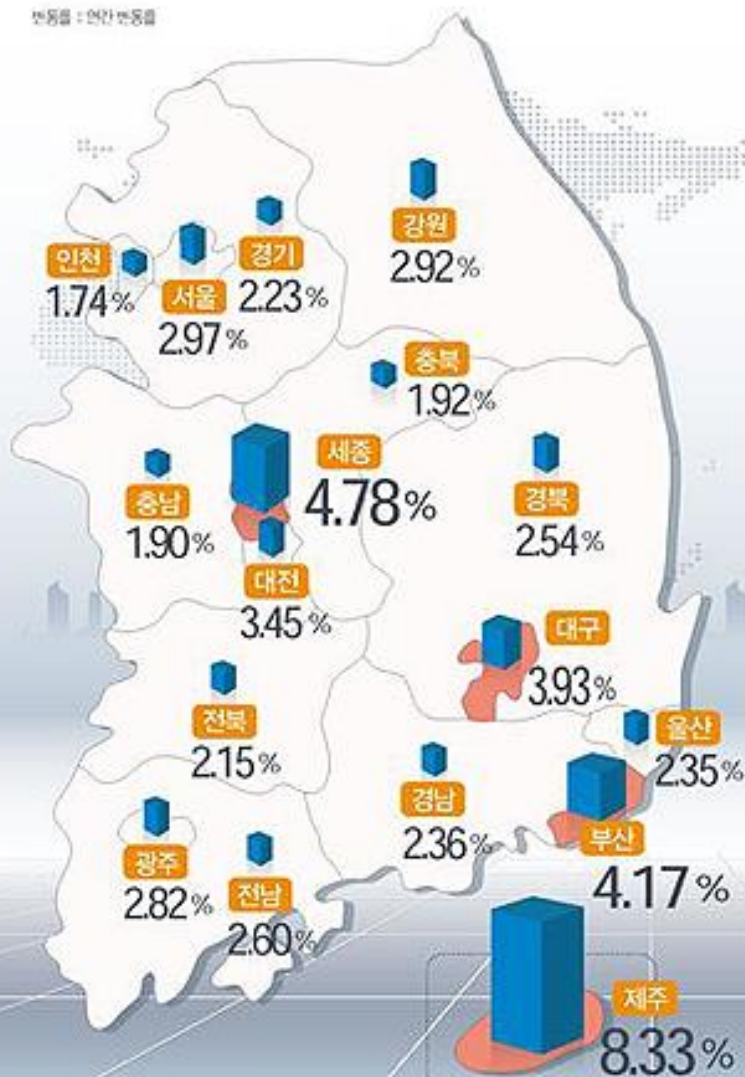
인구 비례 50개 주 중 최다
고물가·저임금 등에 거리로
관광업 타격에 사회갈등도



“하와이의 노숙자 증가는 제한된 섬이라 생활비는 많이 드는데 임금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주 정부 대변인 신디 맥밀리언에 따르면 현재 집계된 노숙자 수는 7620명에 달하는데 그중 30%는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월급으로는 살인적인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거리로 나왔게 된 것이다.” (미주 중앙일보 2015. 11. 17)

2016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단위: 연평균



최근 3년 지가변동률 비교 (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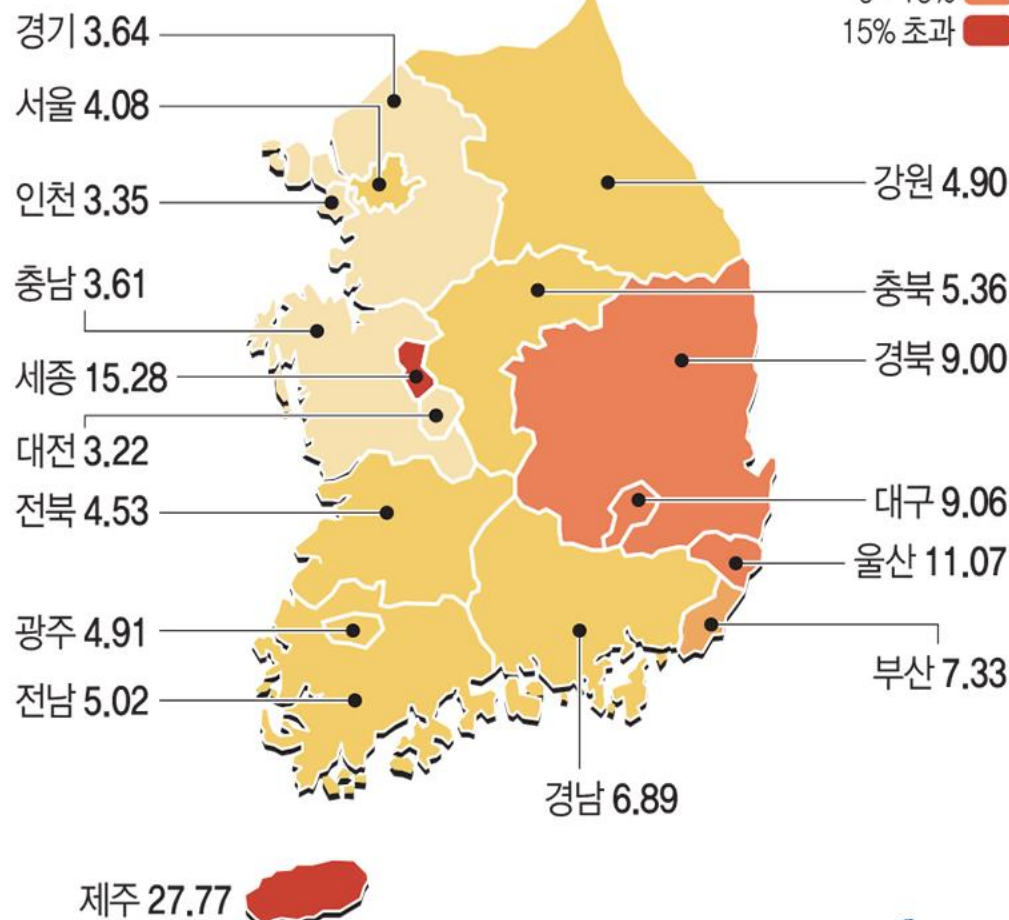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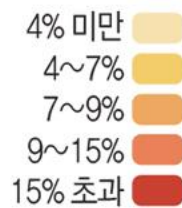


전국 토지거래량/지가변동률 추이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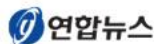


2016년도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평균 : 5.08%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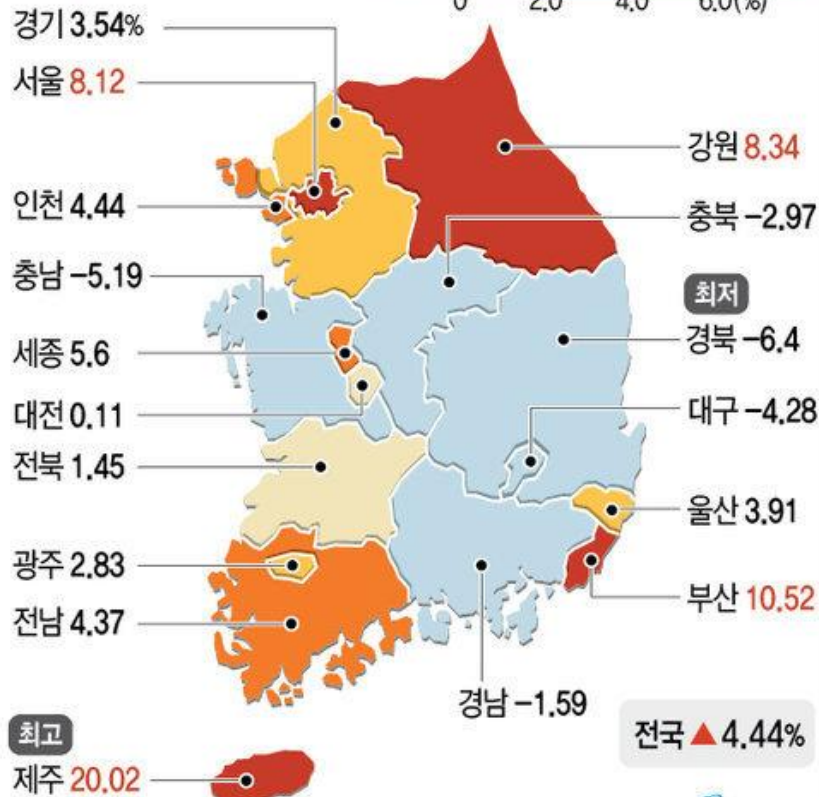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수도권 ▲5.88% | 광역시 ▲3.49 | 기타 시·도 ▼-0.35

총액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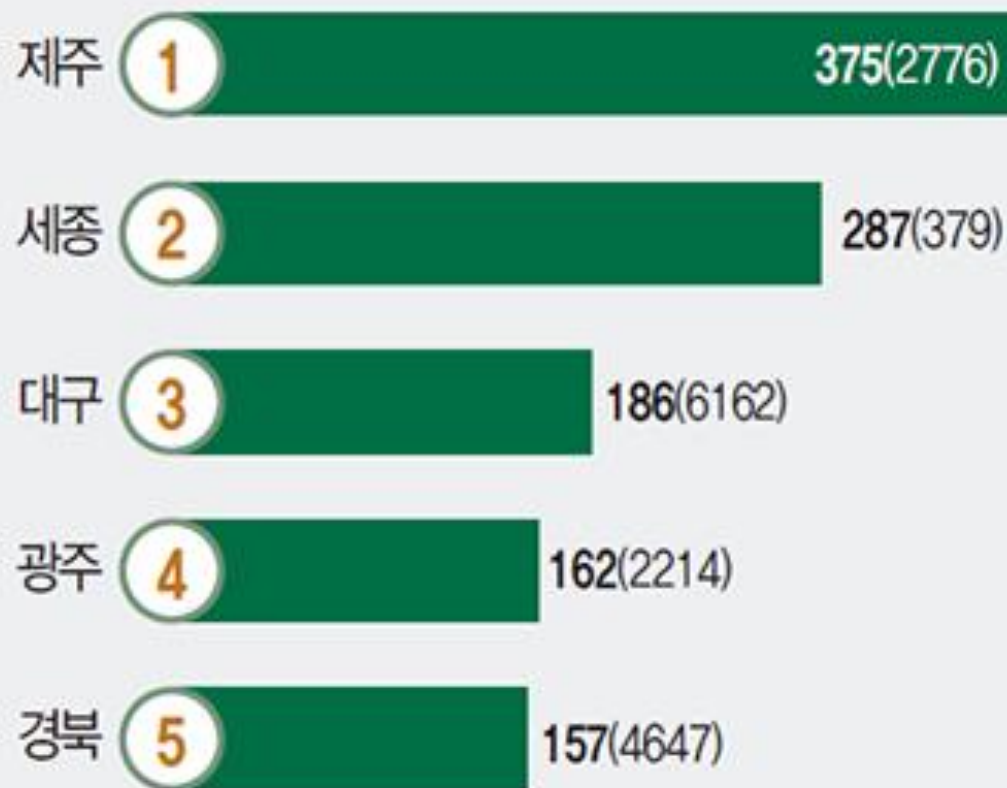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장예진 기자 / 20170427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kr/Le/N1

양도소득세 가장 많이 오른 지역

〈단위:%, 억원〉



*2012년 대비 2015년 증가율,
괄호 안은 2015년 결정세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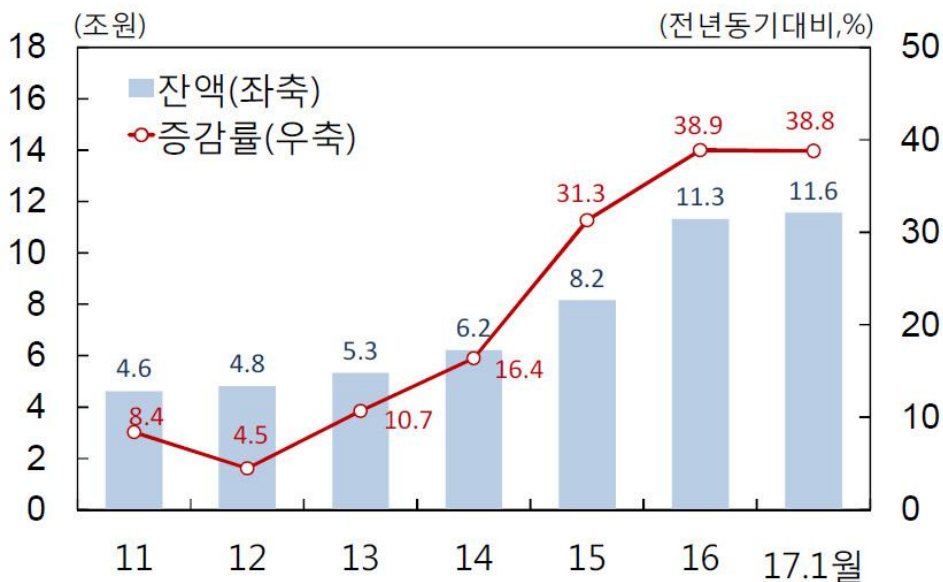
*자료:국세청

매경이코노미
제1878호 (2016.10.12
~ 10.18일자)

줄지 않는 제주 가계대출... 빛 '눈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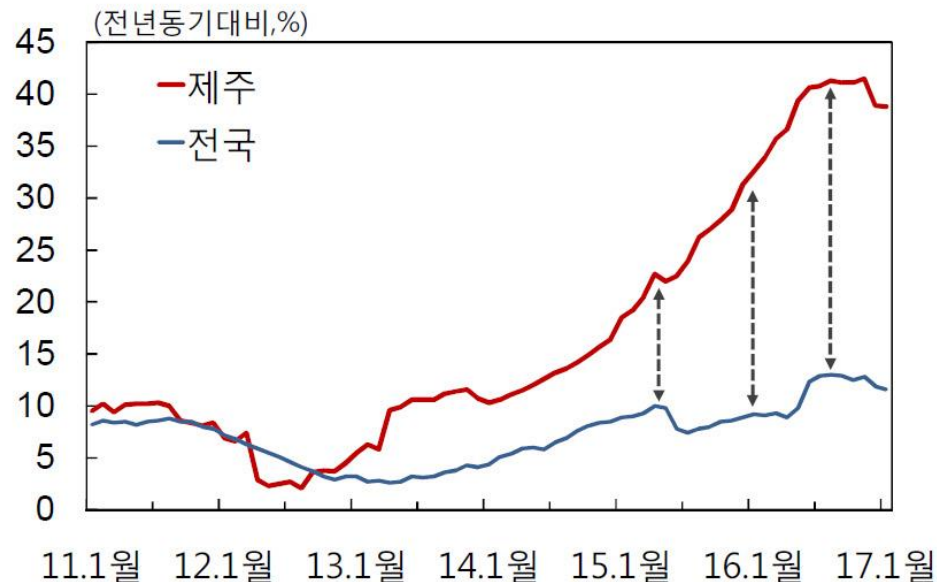
문준영 기자 moonsoyo@jejusori.net 2018년 01월 19일 금요일 16:35 0면

제주지역 가계대출 추이



주 : 예금취급기관 기준
자료 : 한국은행

가계대출 증감률 비교



주 : 예금취급기관 기준
자료 : 한국은행

시도별 총소득 대비 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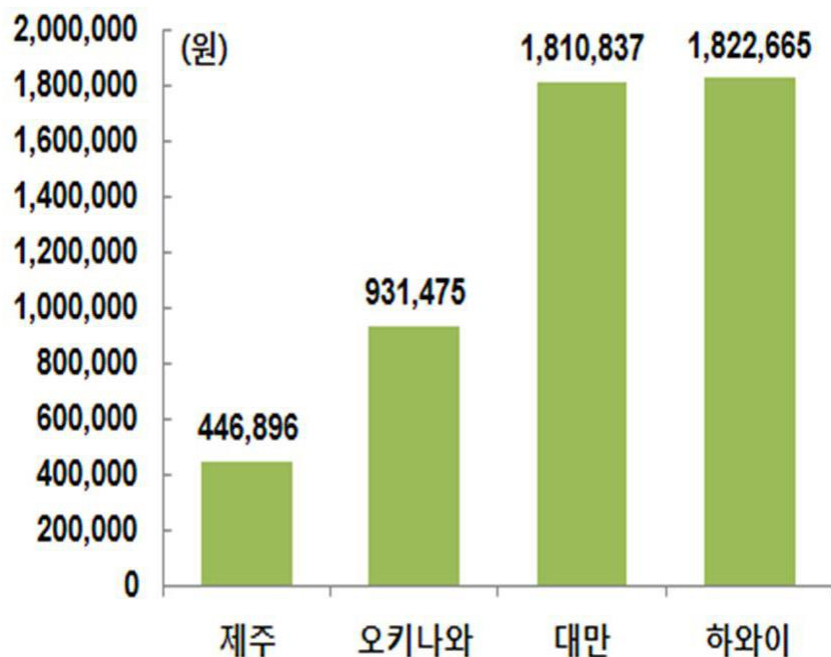
상위 5개 지역 단위: %, 2017년 2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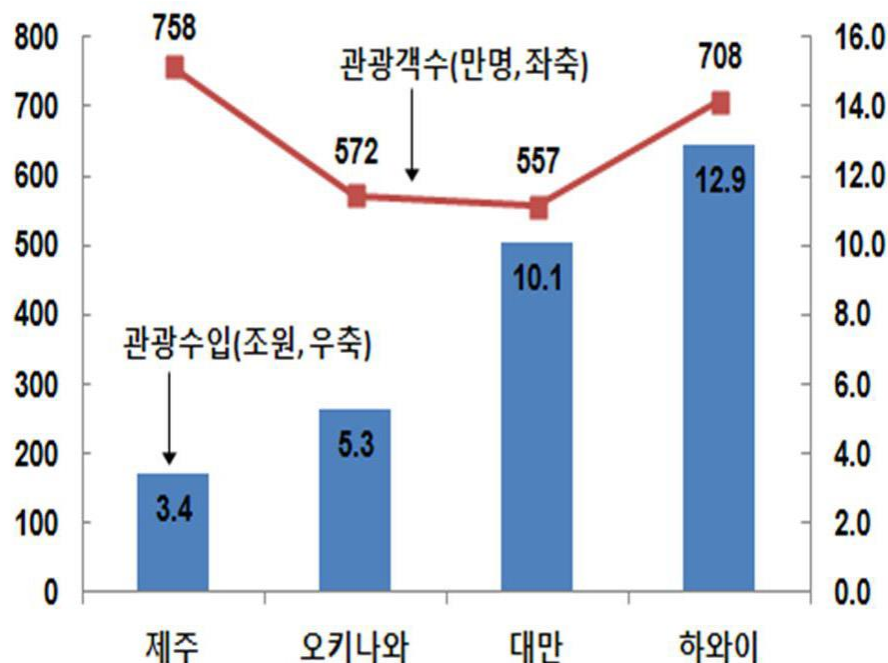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해외 경쟁도시와의 1인당 관광지출액 및 관광수입 비교¹⁾(2010년 기준)

<1인당 관광지출액>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주 : 1) 각 지역의 물가 및 소득수준 등은 감안하지 않은 단순 비교임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하와이 관광청(<http://www.hawaiiitourismauthority.org>),

오키나와현 관광정책과(<http://www3.pref.okinawa.jp>), 대만 통계청(<http://eng.stat.gov.tw>)

뉴스 > 사회 > 뉴스광장 1부



제주, 하와이·발리도 못한 ‘관광객 천만 시대’

입력 2013.11.28 (06:47) | 수정 2013.11.28 (07:21) |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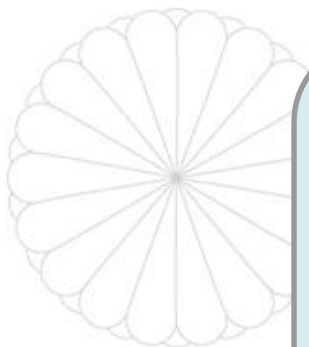
뉴스광장 1부

표준 화질

고화질

키보드 컨트롤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이 1000만명을 돌파했고, 이는 하와이(817만명)나 발리(760만명)보다 많은 숫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5. 제주도 방문시)



제주도 개발정책 갈등 프레임

제주도	지역주민	환경단체
지역경제 발전 대규모 민자(외자)유치	주민주체 배제, 환경파괴 개발 통한 마을발전 기대	환경 훼손, 공동체 파괴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업 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할 것 ○ 대규모 민자(외자)유치 통한 대규모 개발이 경제적 파급효과 크다 ○ 관광 인프라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관광수요 창출과 제2의 성장동력 견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지자본 중심의 개발로 마을환경파괴, 개발이익 도외 유출 우려 ○ 주민참여 개발정책 필요 ○ 개발사업 유치로 마을 지원 통한 마을발전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난개발로 지역의 환경, 경관 훼손 ○ 개발과정에서 찬반 갈등으로 지역의 마을공동체 파괴 ○ 양적 성장 위주의 개발정책 지양하고 주민의 삶의 질 높이는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으로 변화 필요

3-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언

❖ 제주특별법의 전면적인 개정

- ✓ 규제 완화법 · 개발촉진법의 위상을 갖고 있는 특별법 전면개정
- ✓ 지속가능한 제주사회를 목표로 하는 내용으로 전면개정

❖ 법 · 제도개선을 통한 개발행위허가제도 강화

- ✓ 도시계획조례, 보전지역관리조례 등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조건 강화
- ✓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 개선 및 강화

3-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언

❖ 실질적 분권 실현과 주민자치 역량강화 통한 정책참여 활성화

- ✓ 지역정치의 변화와 주민자치 실현을 통한 난개발의 해결
- ✓ 주민자치 강화로 개발정책 투명성 확보와 감시

❖ 관광객 총량제에 입각한 수요관리정책 시행

- ✓ 공급위주의 정책으로 관광객의 양적 포화 등 수용력 한계 도달
- ✓ 인프라 확대 등 수용능력을 늘리는 정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관리 정책이 우선 시행되어야 함



THANK
YOU